

LCK 거포 가동... "V11 기대하라"

KIA 조범현 감독 시즌 구상

'대권' 승부처는 4월, 초반부터 순위싸움

6선발 체제... 청백전 통해 출격준비 완료

KIA 타이거즈가 2011시즌 출격을 위한 준비를 끝냈다.

KIA가 30일 오후 무등야구장에서 자체 청백전을 갖고 엔트리 구성을 위한 마지막 테스트를 진행했다. 전날 무등야구장에는 새로운 시즌을 알리는 조범현 감독이 환하게 밝혀졌다.

KIA는 이를 연속 진행된 주·야간 연습 경기를 통해 세부 점검을 완료했다.

2년 만에 대권 탈환을 노리는 조범현 감독이 손꼽는 승부처는 4월, 어느해보다 치열한 순위싸움이 예상되는 만큼 시즌 초반부터 분위기를 끌어올려 가을 잔치를 맞이하겠다는 계획이다.

매년 4월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던 KIA는 6선발로 높은 벽을 구축하고 화려한 4월을 꿈꾸고 있다. 문제는 시범경기에서 침묵을 이어온 타선이다. 이범호-최희섭-김상현으로 이어질 클린업트리가 KIA의 초반 성적을 쥐고 있는 중요한 열쇠. 시범경기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지는 못했지만 조 감독은 긍정적으로 클린업 트리오를 평가하고 있다.

조범현 감독은 "타선이 고민이지만 새로 가세한 이범호가 착실하게 준비를 해왔고 기본 실력이 있는 선수라서 잘해줄거라 믿는다"며 "김상현이 포지션 변동이 있었지만 김상현에게 기대하는 것은 수비가 아닌 공격이다. 무리없이 좌익수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범경기 마지막 상승세를 보여왔던 이범호와 김상현은 30일 자체청백전에서 홈런포를 쏘아올리며 조 감독의 기대에 부응했다.

특히 1회말 무사 1·2루에서 김희걸을 상대로 가운데 담장을 넘긴 이범호는 2회에도 끝판왕 2루타로 타점을 더하는 등 3

번 타자의 면모를 과시했다.

저조한 페이스를 보이며 우려를 샀던 최희섭도 이날 대형 홈런을 터트리며 긴 침묵을 깼다. 최희섭은 1회말 이범호에 이어 김희걸을 상대로 우중월을 가르는 장외 홈런으로 타선에 불을 지폈다.

이날 청팀 선발로 등판한 서재응이 허벅지 근육 경련으로 1회도 채우지 못하고 마운드를 내려왔지만 큰 부상은 아니라 선발진 구성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KIA는 2004년 이후 지난 시즌까지 개막전 6연패를 기록했다. 조 감독은 연패를 끊기 위해 에이스 윤석민을 선발로 낙점하고 기선제압에 나선다.

조 감독은 "대구 시범경기에서 차우찬을 상대하면서 나름대로 계산은 해두었다. 타자들이 얼마만큼 공략법을 생각해두었는지가 승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내다봤다.

김희걸이 일단 내정됐지만 6선발 자리를 유동적이다. 컨디션과 상대팀에 따라 최적의 선수를 투입해 승리를 쟁겠다는 방침이다.

시범경기 스타로 떠오른 투기 홍건희에게도 신인왕에 도전할 기회가 주어질 전망이다. 조 감독은 "신인에게도 흥분과 분위기가 중요하다. 실패를 통해 자신감을 잃게



되는 등 영향이 크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는 상황에서 기회를 줄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슈퍼스타 K' 허각 축하 공연, 강운태 광주시장 시구

KIA 개막전 이벤트

가수 허각이 KIA 개막전 축하공연을 맡는다. 강운태 시장은 시구자로 나선다.

내달 2일 KIA 타이거즈가 무등야구장에서 삼성 라이온즈와의 시즌 개막전을 치른다. 2007년 이후 4년만에 광주에서 열리는 개막전을 맞아 무등야구장에서는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진다.

2일 오전 11시부터 사전 이벤트가 진행되며 장외에서는 기자자동차 차량전시회가 마련된다. 오후 1시부터 20여분간 선수 사인회도 열린다.



<가수 허각> <강운태 시장>

개막전 축하 공연은 슈퍼스타 K2를 통해 스타로 떠오른 가수 허각이 담당한다. 허각은 사인회에 참여하고 예국가도 부를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홍명보호, 요르단과 맞대결

2012 런던올림픽 표 2차예선

6월 19·23일 홈 앤드 어웨이

북한-UAE, 일본-쿠웨이트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 대표팀의 2차 예선 상대가 요르단으로 정해졌다.

한국은 30일(이하 한국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아시아축구연맹(AFC) 하우스에서 열린 2012년 런던 올림픽 아시아지역 2차 예선 조 추첨에서 요르단과 나란히 그룹 8조에 뽑혔다. 이에 따라 한국은 오는 6월 19일과 23일 요르단과 홈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경기를 치러 3차 예선 진출팀을 거린다.

한국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 성적을 기준으로 1번 시드를 배정받았고, 한국을 포함해 호주·중국·일본 등 모두 13개 팀이 2차 예선으로 직행했다.

요르단을 비롯해 총 11개 팀은 1차 예선을 뚫고 2차 예선에 합류했다.

2차 예선을 통과한 12개 팀은 네 팀씩 3개 조로 나뉘어 다시 홈 앤드 어웨이 경기를 벌여 각 조 1위 세 팀이 런던 올림픽 본선에 오른다. 각 조 2위 3개 팀은 플레이오프를 치러 이긴 한 팀이 아프리카 대륙 국가에서 플레이오프를 거쳐 올라온 한 팀과 대결한다. 이 대결에서 승리한 한 팀은 아시아(총 3.5

2012 런던올림픽 축구 아시아 2차예선 대진표

1조	카타르	인도
2조	이라크	이란
3조	바레인	태국
4조	호주	예멘
5조	일본	쿠웨이트
6조	시리아	투르크메니스탄
7조	북한	아랍에미리트
8조	한국	요르단
9조	우즈베키스탄	홍콩
10조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11조	중국	오만
12조	레바논	말레이시아

6월 19일과 6월 23일 홈 앤드 어웨이로 1·2차전 치러 이긴 팀이 3차 예선 진출

연합뉴스

장)와 아프리카(총 3.5장) 대륙에 0.5장씩 나눠 티켓 한 장을 갖고 본선에 진출하게 된다.

한편, 이날 아시아축구연맹은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 1, 2차 예선 조 추첨도 했다. 하지만 한국은 지난해 남아공월드컵 성적을 기준으로 2번 시드를 받아 3차 예선에 직행한 상태다. /연합뉴스

U-19·U-16 예선 한·일 격돌

아시아선수권대회 조추첨

한국 축구가 내년 열리는 아시아축구연맹(AFC) 19세 이하(U-19) 및 16세 이하(U-16) 선수권대회에서 일본과 맞붙는다.

한국은 30일(한국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AFC 하우스에서 열린 U-19 선수권대회 예선 조 추첨에서 일본, 태국, 홍콩, 캄, 대만과 같은 B조에 편성됐다.

지난해 대회 순위를 기준으로 3번 시드를 받은 한국은 톱시드인 북한, 2번 시드인 호주의 대결을 피했지만 '전통 라이벌'인 일본과 조 1위 자리를 다투게 됐다.

2012년 AFC U-19 선수권대회에서는 39개(동아시아 16개, 서아시아 23개) 팀이 7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르고 여기서 각조 1, 2위 등 14개국이 본선에 직행한다. 또 서아시아팀이 포진한 A, B, C, D조와 3위 한 팀과 동아시아팀이 묶인 E, F, G조의 3위 한 팀이 가세해 총 16개 팀이 본선에서 경쟁한다.

북한은 베트남, 말레이시아, 미얀마, 라오스 등 약체팀과 만났다. 한국은 AFC U-16 선수권대회 조 추첨에서도 일본, 베트남, 대만, 라오스, 캄보디아와 같은 F조에 묶였다.

U-16 선수권대회 역시 7개 조로 편성해 조별리그 1, 2위가 내년 개최되는 대회 본선에 직행하고 A, B, C, D조의 3위 한 팀과 E, F, G조의 3위 한 팀을 합쳐 총 16개 팀이 본선 대결을 벌인다. /연합뉴스

光銀 전대운 주니어 역도 신기록 수립

전국선수권 3관왕 ... MVP

전대운(19·광주은행)이 제49회 전국남자주니어역도선수권대회에서 한국주니어 역도신기록을 2개나 같이치우며 3관왕에 등극했다.

전대운은 30일 강원도 양구군 용하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남자105kg급 경기에서 인상 161kg, 용상 209kg, 합계 370kg을 들어올려 금메달 3개를 목에 걸었다. 특히 전대운은 용상과 합계에서 각각 종전 한국주니어 신기록을 경신하며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했다.

29일 열린 남대부 105kg에서는 조선대 황인섭이 용상에서 182kg을 들어올려 금메달을 뽐냈다.

황인섭은 인상에서는 149kg을 기록하는 등 합계 331kg로 은메달 두 개도 추가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앤틱 좌탁

H561 6~12인 좌탁 ITALY

앤틱 식탁·거실 TV장

ITALY

명화 거실·식탁·침대

ITALY

카우치 & 소파

ITALY

모든식탁과 좌탁은 상판밑 좌우에 있는 50cm 보조 날개 2개로 8인용 10인용으로 쉽게 사용가능 합니다. (한국독점수입)

화정동점 | 서구 화정동 307-1 **화정역사거리(메디피아 신축병원 옆 400평)**

본점 | 동구 장동 58-15 **문화전당 장동로타리 (홍스페이스 가구빌딩)**

화정동점과 본점상품은 겹치지 않습니다.

홍스페이스는 직수입 - 직영점 판매를 원칙으로 하기때문에 국산가구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 062-226-7567

SPACE 홍스페이스
 SINCE 1990 이태리가구 직수입 도소매